

# LPGA서 펼쳐진 영암 김세영 vs 순천 이정은 '연장 혈투'

메디힐 챔피언십 ... 김세영 우승 통산 8승

신인 이정은 우승 놓쳤지만 데뷔후 최고 성적

한국계 선수들 올 시즌 11개 대회서 7승 합작

김세영(26)이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에서 통산 8승을 수확했다.

영암 출신 김세영은 6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데일리시티의 레이크 머세드 골프클럽(파72-6507야드)에서 열린 메디힐 챔피언십(총상금 180만 달러) 최종 4라운드에서 버디 2개, 보기 3개, 더블 보기 1개를 묶어 3타를 잃었다.

나흘간 합계 7언더파 281타로 순천 출신 이정은(23), 브론테 로(잉글랜드)와 동타를 이뤄 연장전에 나선 김세영은 연장 첫 홀 버디로 정상에 올랐다. 우승 상금은 27만 달러다.

지난해 7월 손베리 크리크 클래식 이후 10개월 만에 트로피를 추가하며 통산 8승을 거둔 김세영은 박세리(25승), 박인비(19승), 신지애(11승), 최나연(9승)에 이어 LPGA 투어 한국 선수 최다 승 5위에 올랐다.

특히 그는 8승 중 4승을 연장전에서 거둬 승부처에 강한 모습을 발휘했다.

김세영의 우승으로 한국 선수들은 올해 LPGA 투어에서 11개 대회 중 6승을 합작했다.

특유의 '빨간 바지'를 입고 3타 차 단독 선두로 출발했으나 김세영이 우승까지 가는 길은 험난했다.

초반 샷 난조로 1번 홀(파4) 더블 보기, 2번 홀(파4) 보기가 나오며 순식간에 3타를 잃고 흔들렸다. 7타를 줄인 로에게 공동 선두를 허용한 김세영은 8번 홀(파4) 1m 남짓한 파 퍼트를 놓쳐 로에게 한 타 뒤진 2위가 됐다.

김세영이 타수를 줄이지 못하는 사이 이정은이 15번 홀(파5) 이글, 16번 홀(파4) 버디로 공동 2위에 올라 경쟁은 더 치열해졌다. 이정은은 로와 공동 선두에 오른 채 먼저 경기를 마쳤다.

이어 김세영이 15번 홀(파5)에서 이날 첫 버디를

써내며 공동 선두에 복귀해 혼전 양상이 이어졌다.

김세영은 17번 홀(파3)에서 6번 아이언 티샷을 병커에 빠뜨린 뒤 병커샷도 그린에 올리지 못한 채 한 타를 잃고 3위로 밀리기도 했지만 마지막 18번 홀에서 투 퍼트 버디를 잡아내 연장전에 합류했다.

18번 홀에서 열린 이정은, 로와의 첫 연장전에서 김세영의 두 번째 샷은 직전 18번 홀의 '데자뷰'처럼 비슷한 위치에 떨어졌다. 이정은과 로가 버디 퍼트를 놓친 뒤 김세영은 버디 기회를 놓치지 않고 마침내 웃었다.

이정은은 연장전을 넘지 못했지만, LPGA 투어 진출 이후 최고 성적을 남겼다. 이전까지는 지난 달 ANA 인스퍼레이션 공동 6위가 가장 좋은 성적이었다.

지은희(33), 양희영(30)은 나란히 5언더파 283타를 기록, 공동 4위에 올라 '톱10'에 한국 선수 4명이 이름을 올렸다.

박인비는 전인지(24) 등과 공동 23위(이비파 288타)로 대회를 마쳤다. 초청 선수로 출전한 최혜용(29), 이다연(22)은 공동 47위(4오버파 292타)에 자리했다.

/연합뉴스



“뒀어” 6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델리 시티의 레이크 머세드GC에서 열린 '2019 LPGA 메디힐 챔피언십'에서 연장 승부 끝에 우승을 차지한 김세영이 기뻐하고 있다. /연합뉴스

## 새얼굴로 '난국 돌파'



수비·타선 집중력 하락... 지난해 3승 3패 '제자리'

KIA, 두산·SK와 6연전... 강이준 오늘 선발 데뷔

이민우·김민식 등 엔트리 말소... 분위기 반전 기대

는, KIA 팬들에게도 낯선 선수다. 강현중으로 임단을 했던 그는 지난해 강이준으로 개명을 했다.

선발로 프로 데뷔전을 치르는 강이준은 190cm의 장신으로 스리쿼터에 가깝다. 긴 팔을 활용해 던지는 140km 중반의 직구와 투심, 슬라이더가 강점으로 자신감을 바탕으로 한 공격적인 피칭도 좋은 점수를 받는다.

곽정철 퓨처스 투수 코치는 “매사에 자신감이 있고 공격적으로 승부를 하는 선수다. 강하게 공을 내리꽂으면서 슬라이더, 투심, 커브를 구사한다”며 “키도 크고 팔이 길다. 앞에서 끌고 나와 때리니까 타자 입장에서 공을 더 강하게 느낄 것이다. 투심이라는 게 스리쿼터로 내려올 때 변화가 더 있는데 직구와 적절히 잘 쓴다”고 강이준을 설명했다.

또 “인터벌도 빠르고 승부욕도 강한 선수다. 자신의 밸런스로만 던지면 좋은 결과 낼 수 있을 것이다”고 기대감을 보였다.

KIA는 양현중, 터너, 윌랜드 세 선수와 함께 임기영, 김기훈으로 선발진을 구성해 시즌을 시작했다. 이후 임기영이 부상으로 빠지면서 황인준, 홍건희, 양승철이 KIA의 선발로 이름을 올렸다.

그리고 김기훈이 빠지면서 강이준이 KIA의 올 시즌 9번째 선발투수가 됐다.

기회를 잡은 강이준이 '깜짝스타'가 되어 위기의 KIA 마운드에 새바람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편 KIA는 분위기를 전환을 위해 투수 이민우, 포수 김민식, 내야수 최원준, 외야수 문선재를 엔트리에서 말소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 ■ KBO 중간순위 (6일 현재)

순위	팀명	경기	승	패	무	승률	게임차
1	SK	36	24	11	1	0.686	0.0
2	두산	37	25	12	0	0.676	0.0
3	NC	35	22	13	0	0.629	2.0
4	LG	35	21	14	0	0.600	3.0
5	키움	37	22	15	0	0.595	3.0
6	한화	34	16	18	0	0.471	7.5
7	KIA	35	12	22	1	0.353	11.5
8	롯데	35	12	23	0	0.343	12.0
8	삼성	35	12	23	0	0.343	12.0
10	KT	37	11	26	0	0.297	14.0

첫 경기부터 물음표가 가득하다.

로테이션상으로는 '루키' 김기훈이 마운드에 오를 차례다. 하지만 김기훈은 앞선 1일 삼성전에서 자신 있게 공을 던지지 못하면서 3이닝 9피안타(1피홈런) 3볼넷 7실점(6자책점)으로 무너졌고, 2군에서 재중전 시간을 갖게 됐다.

김기훈의 이탈로 두산 베테랑 유희관과 마운드에서 맞대결하게 된 이는 고졸 3년 차 강이준이다.

강이준은 7일 선발 등판과 함께 정식 번호를 받

## 다공 축구 '진검승부'

K리그2, 1위 광주 FC - 2위 부산 아이파크 12일 격돌

승점 2점차... 부산, 26득점으로 광주보다 10득점 앞서

체질 강화에 성공한 광주FC가 선두 수성을 위해 '다득점'을 겨냥한다.

광주는 지난 4일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전남 드래곤즈와의 하나원큐 K리그2 2019 10라운드 홈 경기에서 2-0 승리를 거뒀다. 이와 함께 광주는 10 경기에서 '무패'를 기록하며 K리그2 선두를 지켰다.

또 올 시즌 펼쳐진 전남과의 세 차례 대결에서 모두 광주가 웃었다.

지난 3월 27일 FA컵 3라운드에서 전남에 1-0 승리를 거뒀던 광주는 3일 뒤 진행된 전남과의 정규리그 첫 대결에서도 2-1로 이기는 등 올 시즌 세 번의 '엘로더비'에서 모두 승자가 됐다.

이번 승리는 1승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광주는 선두 질주가 '운'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 보였다.

광주는 8라운드 안산 원정에서 어렵게 0-0 무승부를 기록했다. 여기에 광주의 공격을 책임져왔던

펠리페(9득점)가 경기 종료 직전 퇴장을 당하면서 광주의 선두 질주에 제동이 걸리는 것 같았다.

지난 1일 부천원정에서 광주는 펠리페의 공백을 실감했다.

이날 광주가 날린 20차례의 슈팅이 모두 무위로 그치면서 0-0으로 경기가 끝나는 것 같았다. 다행히 광주는 후반 45분 터진 여름의 골로 극적인 1-0 승리를 거두며 1위 자리를 수성했다.

골키퍼 윤영국도 초반 굳게 광주 골대를 지켰던 이진형의 부상을 잇게 하는 호수비 열전으로 광주의 수비 힘을 보여줬다.

전남전에서도 승리는 가는 길은 험난했다.

광주는 전반 39분 수비의 핵심인 이한도가 퇴장 당하면서 수적 열세에 몰렸다. 하지만 광주는 2-0 승리로 경기장을 찾은 5096명의 팬을 열광시켰다.

전반 10분 이요뜸이 그림같은 프리킥으로 광주의

선제공골을 만들어냈고, 펠리페의 공백으로 기회를 얻은 정영총도 골맛을 봤다.

후반 42분 역습 상황에서 김정환이 드리블쇼를 펼치며 페널티킥을 얻어냈다. 키커로 나선 정영총이 침착하게 골대를 가르면서 승리에 췌기를 박았다.

'해결사' 펠리페가 빠졌지만 잘 준비된 광주의 '플랜 B'가 10경기 연속 무패행진을 만들어냈다.

광주는 달라진 전력을 보여줬지만, 아직 안심할 수 없는 1위다.

2위 부산이 승점 2점 차로 광주를 바짝 쫓고 있다. 무엇보다 부산의 화력이 광주를 위협하고 있다.

부산은 10라운드 대전시지연과의 경기에서 5-0 대승을 거뒀다. 10라운드까지 부산은 26득점을 기록하며, 16득점의 광주에 무려 10득점 앞서 있다.

K리그는 승점이 같을 경우 득실 차가 아닌 다득점으로 순위를 결정한다.

광주는 오는 12일 원정길에 올라 1위 자리를 놓고 부산과 '진검 승부'를 벌인다. 펠리페가 돌아오는 만큼 '다득점 승리'를 목표로 부산전을 준비해야 한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